■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3-35.
http://doi.org/10.17948/kcs.2023..98.13

【 특집 : 담정 김려의 문학과 그의 시대 】

담정그룹의 문학세계와 상업도시 한양의 도회지 문화

안대회(安大會)*

목 차

1. 머리말
2. 담정그룹의 교우와 문학적 지향
3. 상업도시 한양의 인식과 창작의 소재
4. 도회지 풍경과 도회민 생활의 묘사
5. 도회지 여항인의 묘사와 대중문화의 중시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도회지 문학의 시각에서 담정그룹 문인의 문학세계를 분석하였다. 담정그룹은 潭庭 金鑢의 『潭庭叢書』에 수록된 16명의 작가를 주축으로 하여 姜彝天과 沈魯崇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토박이 문인이 주축을 이룬 이 그룹은 독특한 문학적 지향을 보였다. 개성과 변화가 없는 문단의 타성을 비판하며 小品文을 주요한 문체로 채택하여 창작하였다. 낡고 흔해 빠진 창작 소재에서 벗어나 대도회지 한양이 발산하는 새로운 사회와 주민을 창작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동인들은 상업도시 한양의 물질적 풍요를 즐기고 도회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태도가 창작에 반영되어 번영을 구가한 18세기 후반의 한양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살아가는 여항인을 애정을 가지고 묘사하였다. 그로 인해 도회지의 활력과 상인의 삶, 상업도시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작가의 소비생활과 도회민의 생활상, 대중문화 등의 현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이 문학그룹이 지향한 도회지 문학은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남다른 개성을 지닌 독특한 유파임을 부각한다. 식상한 소재와 구태의연한 인물, 전통에 기댄 낡은 문체를

*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버리고 낯설고 새로운 문체로 한양의 도회지 문화와 인간, 분위기를 부상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주제어: 담정총서, 담정그룹, 도회지 문학, 상업도시, 한양, 대중문화.

1. 머리말

薝庭 金鑢(1766-1821)가 편집한 『薝庭叢書』에는 16명의 작가가 저술한 46종의 작품집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총서는 편자의 수택본이자 유일본이다. 학자원에서 2014년에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영인하여 김려와 그 주변 인물에 주목한 많은 연구자가 간편하게 활용하였다.[1] 다행히 이제는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김려는 연산현감으로 재임하던 1818년 봄부터 함양군수로 재임하던 1821년 6월까지 이 총서를 편찬하였다. 자신의 작품집을 포함하여 가깝게 지내던 문학동인이 지은 흥미로운 성격의 작품집을 직접 교열하고 여러 書手의 손을 빌려 필사하였다. 야사총서 『寒皐館外史』, 『倉可樓外史』와 더불어 역사와 문학 방면 편집자로서 김려가 열정을 쏟아 편찬한 결과물이다. 조선 후기 역사와 문학 방면에서 손에 꼽히는 주요한 편찬물이다.

편집자로서 김려의 위상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헌을 보전한 선에 머물지 않는다. 편집자는 편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시각을 투사하기 마련인데 김려는 그 권한과 시각을 총서 편찬에 행사하였다. 그 결과 『담정총서』는 남다른 문학적 지향을 보인 문학동인의 작품집 성격을 보유하게 되었다. 총서의 배후에는 독특한 취향을 공유하며 창작한 일군의 문인 집단이 보인다. 이 집단의 리더로서 김려는 총서를 편집하였다. 『담정총서』로 느슨하게 묶여있는 이 문인 집단을 담정그룹이라 부른다.[2] 이 그룹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학적 지향을 보여준 일종의 문학 서클이다.

담정그룹은 서울 토박이 문인을 중심으로 혈연, 사제, 교우, 당파, 문학 취향

1) 鄭炳浩, 「金鑢文學 연구의 성과와 반성적 검토」, 『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5-40면.
2) 朴畯遠, 「『薝庭叢書』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4.

으로 결속되었다. 동인들은 정조와 순조 연간에 남다른 목표와 지향을 보이며 등장한 자의식 강한 문인 집단이었다. 개별 작가의 조명을 넘어 담정그룹의 활동 양상과 문학세계는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주요 문인은 상업도시 한양에 세거한 주민으로서 동시대 한양의 도회지 현실에 주목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를 창작의 소재로 삼았다. 한양의 인정세태와 여항인의 생활상, 다양한 대중문화와 도회민의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도회지 실상에 주목하면서 유가적 이념은 약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담정그룹 문학에 나타난 도시성은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 논문은 담정그룹 문인이 상업도시 한양의 도회지 현실과 문화를 묘사한 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담정총서』에 수록된 작가를 중심으로 하되 담정그룹 범위 안에 있는 沈魯崇(1762-1837)과 姜彝天(1769-1801)까지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담정그룹의 교우와 문학적 지향

『담정총서』에 작품을 수록한 문인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김려를 포함하여 鄭彦學(1749-?), 李安中(1752-1791), 李魯元(1756-1811), 權常愼(1759-1824), 李鈺(1760-1815), 金愚淳(1760-1835), 李友信(1762-1822), 金祖淳(1765-1832), 李復鉉(1767-1853), 金鑮(1772-1833), 惠藏(1772-1811), 金善臣(1775-1846), 趙基復(1773-1839), 李濟殷(1784-1836), 李濟魯(1789-1816)가 있다. 심노숭과 강이천은 이들과 밀접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담정총서』에는 작품집이 실리지 않고 따로 문집이 전한다.

동인들은 혈연과 혼맥, 사제와 성균관 교우, 당파와 친분, 거주지 등으로 관계망이 중첩되어 있다. 그 인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3] 먼저 혈연과 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교우와 친분, 거주지로 얽혀 있다. 김려를 중심에 놓고 살펴보면, 김선은 김려의 아우이고, 이복현은 이종사촌, 이제은과 이제로는

3) 朴畯遠, 앞의 글, 1994; 김영진, 「金鑮의 編書 활동과 交遊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41-78면.

이복현의 아들이다. 이우신은 김려의 처남이고, 이노원은 이우신의 종숙부이다. 이안중은 金龍行(1753-1778), 이우신, 권상신, 김선, 金履陽 등과 가까웠고, 김우순은 이안중의 외종질이다. 김조순은 北村에 살며 어릴 때부터 김려, 권상신, 심노숭과 가깝게 지냈다. 김우순, 김조순, 김용행, 김이양은 안동김씨 일족이다. 이처럼 동인은 중첩된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과거를 준비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관계이다. 이옥과 강이천, 심노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기복은 김려와 同榜이었다. 이옥과 강이천은 각각 소북과 남인으로 노론인 김려와 당파가 달랐으나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소품문 취향을 공유하였다. 1790년 司馬試에 김우순, 심노숭, 이옥이 同榜이었다. 이런 관계는 그룹의 창작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언학과 김선신 등 관계망이 느슨한 문인도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정언학은 이덕무, 유득공 등 白塔詩派 시인들과 친밀한 영남 출신 시인으로 나중에는 권상신의 막객이 되었다. 김려와는 젊은 시절부터 시문으로 인연을 맺었다. 김선신은 중인으로 담정 형제와 젊은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

김려와 김선, 김조순, 권상신, 이복현과 그 아들, 심노숭, 조기복, 김우순, 이노원 등은 대체로 老論時派에 속하였고, 안국동, 삼청동, 孟園 등 北村 지역에 세거하였다. 경화세족의 후예로서 가문, 학맥, 인맥이 중첩된 관계를 바탕으로 창작 경향을 공유하였다.

동인의 관계망을 특정한 인물의 인적 관계로 들여다보면 구체적 양상이 드러나므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한다. 먼저 이복현의 사례이다. 대부분 동인과 가깝게 지낸 이복현은 蔭職으로 관계에 진출하여 지방관을 오래 지냈다. 『담정총서』 권25에 수록된 『石見樓雜詠』에는 김조순, 김려, 이우신, 김우순, 이명오, 신위 등 그룹 동인 및 그밖의 시인과 주고받은 시가 다수 실려있다.[4] 이우신과 김려가 1838년 사망한 뒤 시를 지어 젊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4) 이 시집은 김려가 『담정총서』를 엮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복현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어 편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김려, 『담정총서』 권25, 「石見樓雜詠」, '題石見樓雜詠卷後'. "李石見見心復鉉, 余之外從弟也. 以工詩鳴於世, 聞余彙《叢書》, 送詩一弓, 使之編入焉."

지낸 감회를 읊었는데[5] 동인 활동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노론시파가 주축을 이룬 동인 가운데 김조순, 심노숭, 김려 등은 벽파 정권이 무너진 1805년 이후 더욱 가까워져 시문과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다. 『담정총서』 권2의 『閩人觀尺牘』과 권33의 『楓皐觀小牘』에는 그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강이천의 경우에는 『重菴稿』 등에 동인 활동의 흔적이 다수 남아있다. 강이천은 1786년 진사에 급제하고 이후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김려, 김선, 심노숭, 이옥 등과 친밀하게 교유하였다.[6] 김려와 김조순의 傳奇集 『虞初續志』를 빌려 읽었고, 김려를 예찬하는 「金士精歌」를 지어 창작 능력을 추켜세우기도 하였다. 1795년에 지은 「書網錦子南程十篇後」에서는 이옥과 친분이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노숭과 친분은 「別沈進士魯崇陪親熙川任所」 7언절구 8수에 보인다. 또 「上巳日遊桃花洞幷小序」는 1793년 이옥, 김려 등과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성북동으로 봄놀이를 가서 지은 시인데 여기서도 동인 관계를 볼 수 있다. 다만 강이천이 1797년 飛語 옥사를 겪고, 1801년 신유박해에 처형된 이후 동인의 작품집에서는 그와 관련한 기록을 대부분 삭제하여 교유의 흔적을 지웠다.

당대의 기인 문사인 金龍行(1753-1778)의 행적에도 동인의 관계망이 확인된다. 김용행은 영의정 金壽恒의 庶曾孫이자 유명한 화가 金允謙의 아들로서 이덕무, 박제가 등 당시 서울의 서류 문인들과 친분이 깊었다. 박제가 역시 담정 그룹 문인과 관련이 깊은데[7] 그가 김용행에게 준 편지 「與金石坡龍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려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나 「金舜弼傳」을 지어서 그의 삶에 연민을 표하였다. 그 전기에서 김용행이 金直淳, 閔致福, 이우신과 친하다고 밝혔고, 또 李安中의 詩稿에 붙인 글에서 김용행이 이우신, 이안중과

---

5) 李復鉉 저, 조창록 외 옮김, 『石見樓詩鈔』, 「문원 이익지[이우신]와 담정 김려는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했는데 지금 모두 죽어서 감회가 일어 짓다[文原李友益之, 潭庭金兄鑢, 自童年同學, 今俱零落, 感作]」, 성균관대 출판부, 2019, 403면. "玉樹埋金李, 何由一見之. 空山起拱木, 流水絶哀絲. 只信揮斤質, 寧忘避席師. 闃然今立獨, 白首苦低垂."

6) 沈魯崇, 『孝田散稿』 22책, 「自著紀年」, 학자원, 2014. 또 《정조실록》 1797년 11월 12일 기사에 실린 義禁府 供招에서 강이천 스스로 "김려 형제와 본래부터 친하다[鑢之兄弟, 自來相親.]"라고 밝혔다.

7) 박제가가 사망한 뒤 김조순이 「哀貞蕤朴齊家」(『楓皐集』 권2)를, 이복현이 「過朴僉知齊家墓」(『담정총서』 권29, 「石見樓詩卷」)를 지었다. 박제가의 애도시를 지은 문인은 극히 드물다.

친하고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반가워하며 손을 잡고 淸心樓에 올라가 술을 거나하게 마셨고, 술을 마시면 곧잘 〈이소〉, 〈구가〉, 〈애강남〉 따위의 작품을 암송하였다.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서로를 돌아보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곁에 남이 있거나 말거나 괘념치 않았다고 한다.”[8]라고 증언하였다. 『담정총서』 권16에 수록된 이노원의 『秋碧堂文抄』에도 「金龍行傳後敍」가 실려 있다. 김용행, 이우신, 이안중, 이노원 사이에 맺은 불우한 문인 관계는 김려가 김용행의 전기를 짓고 동인과 교유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담정그룹은 이처럼 혈연, 사제, 교우, 당파로 밀접하게 접촉하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였다. 특별한 문학동인 그룹으로 묶어서 보려는 이유는 이들이 특별한 문학적 지향을 추구한 것에 있다. 구성원이 느슨하게 묶여있기는 하나 주요 문인들은 문학적 지향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전통적 문학 창작의 범주를 벗어나 독창적 문학세계를 일구려는 의식을 강하게 표명하였다.[9] 다수의 동인이 소품문을 애호하고[10] 소품문의 창작에 기울었다. 이옥과 강이천, 김려, 김조순, 심노숭, 권상신 등 이 그룹의 주요 문인은 정조 후반기 문단에서 왕성하게 소품문 창작을 주도하였다. 한 세대 앞서서 영조 말엽 박지원과 이덕무 등 일련의 작가들이 소품문을 즐겨 창작한 이후 소품문에 열의를 보인 대표적 문인 그룹이다. 1792년과 1793년 사이에 크게 불거진 정조의 문체반정 사건과 1797년 이후 飛語 옥사와 신유박해에서도 이들 그룹의 小品 취향은 크게 부각되었다. 큰 벌칙을 받은 이옥을 비롯하여 강이천과 김려는 거듭하여 小品과 邪學의 관련자로 지적받는 등 주요한 소품문 문인층으로 부상하였다. 각각의 소품문 취향은 이미 개별 논문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전 선배의 소품문 창작과는 일정하게 연계되면서도 독특한 문학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장부터 이 점을 논한다.

---

8) 김려, 『薄庭叢書』 권10, 「題玄同詩稿卷後」, 학자원, 2014. “每相逢, 輒相樂也. 携手登淸心樓, 酒酣以往, 輒誦離騷經, 九歌, 哀江南等篇, 徘徊眺望, 相視泣下, 旁若無人者.”

9) 『담정총서』 「題杻山文稿卷後」. “盖我東自牧隱, 畢齋以後, 以文鳴者, 凡十數家, 皆不出乎唐宋之範圍. 而公獨別拓門階, 直從先秦兩漢中出來. 肩視楊馬, 方駕董晁, 瓌且偉矣.”

10) 沈魯崇, 앞의 책, 「自著紀年」, 己亥年 기사. “時喜讀作家文, 稗類小品, 如四大書, 《西廂記》, 尤嗜甚, 殆迷溺不返, 冬夜盡一帙失睡.”

3. 상업도시 한양의 인식과 창작의 소재

李載運(1721-1782)은 『해동화식전』에서 "한양이 토지는 나라 전체에서 400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는 100분의 1에 불과하나 가진 부를 헤아리면 절반을 차지한다."[11]라고 말했다. 18세기 중반 무렵 국부가 한양에 집중된 점을 명료하게 짚어냈다. 국부가 집중되고 전국의 물산이 운송되어 쌓인 한양은 화폐 경제가 활성화된 상업도시로 크게 부상하며 다른 도회지와 차별화되었다. 한양은 행정과 군사, 교육과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기능과 더불어 경제수도로서 번영을 구가하였다. 상업화된 한양의 경제적 활력은 도회민의 왕성한 소비생활을 촉진하였고, 도회민은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재미있는 삶을 누렸다.

한양의 경제적 활력은 18세기 중반 무렵 朴趾源 등 白塔詩派의 시문과 李彦瑱(1740-1766)의 『衙衕居室』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한시문의 보수적인 장르적 특성과 사대부의 유학에 밀착한 사유는 상업과 소비의 문화를 문학에 반영하는 데 장애물로 작동하였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행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대다수 문인은 실생활에서는 번영을 구가하고 소비를 즐기더라도 이를 문학에 반영하여 묘사하는 데는 인색하였다. 박지원과 박제가, 이언진의 선례가 등장한 이후 문단에는 도회지 시정사회를 반영하는 문인이 드문드문 등장하였다. 반면에 담정그룹의 여러 문인은 한양의 도회지 실상과 여항인의 존재 및 그 문화에 긍정적 시선을 투사하여 묘사하는 데 적극성을 띠었다.

담정그룹은 한양에 거주한 경화세족이 주축을 이루어 한양의 사회와 문화를 향유하였고, 선배 세대보다 상업도시의 실상을 더 활발하게 문학에 반영하였다. 그 점에서 전후한 시기의 어떤 문인 집단보다 독자성을 보였다.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상인을 주목하면서 담정그룹의 작품 세계에는 시장의 문학화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도시성이 보였다. 목가적이고 정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창작 방향과는 달리 소란스럽고 역동적이며, 변화와 움직임이 많은 세계를 지향하였다.

---

11) 이재운 지음, 안대회 옮김, 『해동화식전』, 휴머니스트, 2019. "漢陽之地, 於國中四百分之一, 而人衆不過百之一, 然量其富, 什居其五."

담정그룹 동인은 대체로 상업도시 한양의 물질적 풍요를 즐기고 도회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다. 이런 태도는 동시대 다수의 유학자와는 결이 달랐다. 유학자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문인이 尹愭(1741-1826)이다. 윤기는 금전 만능주의의 타락한 가치관과 질서가 난무하는 세속적 상업도시로서 한양을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매도하였다.[12] 반면에 담정그룹 동인은 근대도시적 한양의 번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도회적 면모의 적극적 묘사는 이런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담정그룹 동인이 시장 자체에 관심을 둔 사례도 여럿이다. 강이천은 1780년 후반에 「日出漢陽市」란 시에서 이렇게 묘사하였다.

日出漢陽市	날마다 한양 시장에 나가 보니
百物如山積	온갖 상품이 산처럼 쌓여있다.
耳中聞何聲	귓속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
聒聒相交易	왁자지껄 물건을 교환하고 있다.
賣者擡其售	파는 이는 팔 물건을 들어보이고
買者低其直	사는 이는 값을 낮춰 부른다.[13]

20대의 작품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시장의 활력을 묘사하였고, 상행위를 적대시하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 심노숭은 1806년 한겨울 파주에서 한양성에 들어오면서 추위에도 인산인해를 이룬 시장 인파 틈에서 시달렸다. 그 체험을 담은 시에서 "한양성에 들어오니 길가는 행인들 빽빽하여 / 발은 땅에 붙지 않고 눈은 허공에 떠 있네."[14]라고 읊었다. 역시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김려와 이옥은 더 뚜렷하게 시장을 작품에 투사하였다. 이옥은 다양한 산문에서 시장과 시정인을 등장시켜 도회지 풍경을 구성하였다.[15] 이옥은 『담정총서』 권19 『문무자문초』에 수록된 「밤, 그 일곱 가지 모습[夜七]」에서 아이의

12) 안대회, 「18세기 후반 서울의 都市相과 尹愭의 시선」, 『대동문화연구』 8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55-84면.
13) 강이천, 『重菴稿』 1책, 「日出漢陽市」, 한국문집총간속 b111집.
14) 沈魯崇, 앞의 책, 「入城」.
15) 안대회, 「李鈺 小品文에 나타난 漢陽 都會民의 生活과 世態」, 『한국한문학연구』 69, 한국한문학회, 2018, 7-36면.

눈에 비친 한양 도회민의 삶을 묘사하였다. 과객, 노름꾼, 장사꾼, 수공업자 등이 등장하여 상업도시의 생존경쟁 현장에서 분투하는 물질적 욕망의 군상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담정총서』 권21 『梅花外史』 「柳光億傳」에서는 과거시험 답안을 매매하는 柳光億이란 인물의 사건을 묘사한 전기인데 도입부에서 이옥은 이윤에 따라 행동하는 도회민과 시장의 생리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한양은 장인과 장사꾼이 몰려드는 곳으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상점이 별처럼 벌여 있고, 바둑알처럼 깔려있다. 남에게 임금을 받고 손품을 파는 자도 있고, 어깨와 등을 파는 자도 있고, 뒷간을 치는 자도 있고, 칼을 치며 소를 잡는 자도 있고, 얼굴을 곱게 꾸며 매음하는 자도 있으니 천하의 매매가 여기에서 정점에 이르렀다.16)

상인과 수공업자가 몰려들어 상품을 교역하는 시장으로서 한양을 묘사하였다. 다양한 상품과 노동자가 교류하는 한양에서 유광억은 代作 전문가라는 특별한 임금노동자로 살아갔다. 이옥의 희곡 『東廂記』와 시집 『俚諺』도 한양의 시정사회를 묘사한 작품으로 상업도시의 인정세태가 곳곳에 스며있다. 그는 「俚諺引」에서 당대 사람으로서 한양의 도회민임을 자각하고 동시대의 생활공간으로서 도회지의 실태를 묘사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이옥의 작품에서 한양의 시장은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핵심지이다.17)

김려의 문학에서는 얼핏 보면 시장이란 공간과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작품 곳곳에 시장과 상업의 문제가 투사되었다.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완의 장편고시 「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만 해도 그렇다. 이 작품은 백정의 딸이 양반 집안의 아내가 된다는 파격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봉건제도의 이완을 반영한 문제작으로 손꼽힌다. 현실비판, 신분타파, 사해동포주의의 주제를 담았고18), 주제사상이 진보적이고, 민중적 어법을 도입하였으며, 생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19), 하층민의

16) 李鈺, 「梅花外史」, 〈柳光億傳〉, 『薖庭叢書』 11권. "京師, 工賈之所萃也. 凡可售之物, 廛肆星羅而棊布. 有爲人賃手指者, 有賣其肩與背者, 有淘圊者, 有鼓刀血牛者, 有華其面嫁者, 天下之買賣, 極乎此矣."
17) 안대회, 앞의 글, 2018.
18) 허준구, 「薖庭 金鑢의 시세계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참상과 질곡을 좌시하지 않은[20] 작품으로 인정하여 연구자 대부분이 호평하였다. 설득력 있는 논의와 평가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바탕에는 다양한 상인의 상업행위와 체험이 깔려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여주인공 방주의 집안은 楊水尺 출신의 신분 낮은 수공업자 겸 상인이다. 아버지는 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 겸 상인이고, 아들은 행상꾼, 懸房 운영업자, 소고기 부산물 판매자, 개장국 음식업자로 모두 지방에 거주하는 소상인이다.[21] 혼사를 주도한 남주인공의 아버지인 張把摠은 몰락한 양반가 고아로서 나무를 하여 한양 시장에 팔아서 '구리개 점포에서 밥을 얻어먹고, 팔패 시장에서 잠자리를 빌려 자는[露飡銅街店, 寄宿八牌市.]' 일용노동자 출신이다. 향촌에 거주한 인동장씨 명문가 출신이란 언급은 사실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22] 당시 전국 각지에서 한양에 공급되던 일용노동자와 상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정확한 실체이다. 장파총은 용산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여 전국의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조기와 민어, 전복, 명태를 잡아 판매하는 큰 상인으로 성장하여 성공신화를 쓴 인물이다. 곳곳에서 물고기 잡는 과정과 상행위 실상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23] 이 작품은 팔도를 무대로 장사하는 상인과 향촌 장사꾼 집안의 혼인과 변심을 다룬 서사시이다. 그밖에 시집 곳곳에는 상업의 현장과 상인이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동인의 문학에는 한양의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상업 현실이 부각되어 있다.

---

19)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 2, 창비, 2013.

20) 홍진옥, 「薄庭 金鑢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100-109면.

21) 김려, 『薄庭遺藁』 권12, 「補遺集」, '古詩爲張遠卿妻沈氏作', 한국문집총간 289집. "南市賣矮籠, 北市鬻箕子. 錐刀日中集, 皆言製造美. 大兄邑貿販, 小兄營懸坊. 中兄業胃脯, 長夏烹狗醬."

22) 김려, 같은 글. "借問把摠誰, 玉山良家子. 蟬聯留侯胄, 奕赫世趾美. 少小嬰憂患, 飄宕去鄉里." 趙秀三(1762-1849)의 『秋齋紀異』에는 양반가 출신의 상인과 일용노동자가 여럿이 등장한다.

23) 다음 구절이 물고기 행상꾼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四月販도子, 五月販蹲鴟. 單尾州葉零, 兩尾六錢奇. 一擔三十貫, 人力便相宜. 輭路勝似馬, 駄價逈不同. 假使折本了, 盤纏出其中. 葦條物所有, 贏縮不更費. 肯落閭巷口, 秖充卿相胃."

4. 도회지 풍경과 도회민 생활의 묘사

담정그룹의 주요 동인은 상업도시의 활력과 상인의 삶에 주목하였고, 번화한 도회지 풍경과 다양한 도회민의 생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작가의 소비생활을 창작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전의 어떤 작가와 비교해도 이 그룹의 독자적 특징으로 이 점을 꼽을 수 있다. 전원의 목가적 풍경과 은사의 한가로운 생활을 즐겨 다룬 시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옥은 한양의 대도회를 묘사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서 '大淸 乾隆 시절에 태어나 朝鮮의 漢陽城에 살면서 감히 긴 목 짧은 목을 빼고 큰 눈, 가는 눈을 부릅뜨고서 國風과 樂府와 詞曲의 창작을 말하는 망령된 짓거리를 어째서 한단 말인가? (…) 저 다정다감한 천지만물은 한양성 아래라고 해서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다.'[24]라거나, '처한 지역을 묻는다면 비단을 펼친 듯한 장안의 시끌벅적한 대도회이다.'[25]라고 하여 한양의 현재 사람과 생활을 묘사하는 창작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김려와 강이천, 김조순, 심노숭 등도 그 창작 방향에 공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양 밖에 거주한 동인보다는 한양 안에 거주한 동인에게서 그 방향성이 더 강하였다.

동인 다수는 한양 도회민의 감성을 물씬 반영하여 도회지 풍물과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시문을 지었다. 먼저 주목할 문인이 강이천이다. 강이천은 「漢京詞」 106수를 지었는데 한양 전체의 번영한 실태를 묘사하였다. 1792년에 창작된 일련의 「城市全圖」 가운데 상업도시의 활력이 넘치는 시장과 거리를 생생하게 묘사한 박제가의 작품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26] 이 연작시에는 시끌벅적한 대도회의 생업 현장과 건강한 생활상, 예술과 문화, 다양한 사회상, 여가생활과 유흥문화 등을 다채롭고 재미있게 묘사하였다.[27]

---

24) 李鈺, 『俚諺』, 「俚諺引」, '一難'. "奈之何生於大淸乾隆之年, 居於朝鮮漢陽之城, 而乃敢伸長短頸, 瞋大細目, 妄欲談國風樂府詞曲之作者乎? (…) 惟彼多情之天地萬物者, 不以漢陽城下而或一處不隨焉."

25) 李鈺, 같은 글, '二難'. "問其地也, 則錦繡長安, 紛紛擾擾之大都會也."

26) 안대회, 「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213-249면.

27) 방현아, 「重菴 姜彝天의 漢京詞 硏究—18世紀 서울의 都市的 樣相의 形象化—」,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3; 정우봉, 「강이천의 『漢京詞』에 대하여—18세기 서울의 시적 형상화—」, 『한국학보』 20(2), 일지사, 1994, 2026-2051면; 강경훈, 「중암 강이천 문학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도회민의 생활 풍속에 주목하면서도 특히 여성의 삶과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 경향을 선도한 문인은 이안중이다. 정월 대보름을 묘사한 「上元謠」를 비롯하여 「肥年詞」, 「跳跳曲」 등 풍속을 다룬 작품과 「月節變曲」 12수, 「山有花曲」 등 여성의 삶과 감정을 다룬 작품을 지었다. 『담정총서』 권30에 수록된 『丹邱子樂府』에는 이런 부류의 작품을 俗樂府라는 범주로 擬古樂府와 함께 수록하였다. 이안중의 작품에 공감한 동인은 비슷한 성격의 시를 연속하여 지었다.[28] 김우순은 「燈前賭」 16수, 「燈火詞」 12수 등의 작품을, 김려와 이노원도 같은 성격의 시를 지었다. 김려는 「上元俚曲」 25수를 짓고서 李玄同體를 모방하였다고 말해 이안중의 창작에 자극받은 작품임을 밝혔다.[29] 창작의 방향성을 동인끼리 공유한 실상을 잘 보여준다.

김려는 이안중 작풍을 따라 지은 한양 도회지 풍속을 俚曲이란 이름으로 표현하였고, 그 개념을 연산 일대의 지방 풍속을 묘사한 「黃城俚曲」에서도 썼다. 이옥이 한양의 여성 풍속을 묘사한 독특한 시집 『俚諺』도 俚曲과 의미가 유사하다. 俚란 글자는 도회의 상층부가 아닌 일반 도회민을 염두에 둔 창작의 방향성을 암시하고, 동인끼리 공유한 의식을 보여준다.

그 방향성은 한양 도회민의 풍경과 생활을 넘어서 명승지를 유람하고 쓴 시와 유기에도 나타났다. 금강산과 단양 일대, 유배지, 일본 등을 여행하고 지은 작품의 비중도 적지 않기는 하나 한양 근교의 산수와 유원지를 나들이하고 지은 유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18세기 중반 이후 근교 명승지로 크게 부각한 성북동과 추사 김정희의 소유였던 石瓊樓를 비롯한 한양 북쪽 지역이 두드러진다. 강이천의 「上巳日遊桃花洞幷小序」는 1793년 이옥, 김려 등과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성북동으로 봄놀이를 간 나들이를 묘사하였다. 이옥의 「重興遊記」는 1793년 북한산 중흥동을 유람하고 쓴 유기이고, 「三游紅寶洞記」는 현재의 연세대 경내 일대를 세 번 노닐고서 쓴 유기이다.[30] 김조순이 1819년 김려, 조학은 등과 연세대

125-156면. 강이천은 時俗 里巷의 이야기가 뒤섞인 시고를 두고 "眼前之事口頭話, 毫端籠挫元容易." 라고 평가하여 눈앞에 벌어진 일과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을 시로 쓸 것을 요구하였다.

28) 박준원, 「玄同 李安中 硏究」, 『대동문화연구』 25,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1990, 93-107면.

29) 김려, 『藫庭叢書』 권30, 「艮城春囈集」. "「上元俚曲」, 倣李玄同體二十五首, 走筆簡雲樓兪子範."

30) 안대회, 「조선 후기 小品體 遊記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211-243면.

뒷산에 있는 봉원사를 유람한 유기 「記奉元寺遊」와 여럿이 함께 지은 시도 있다. 이안중의 「團圓會帖序」와 「續團圓會帖序」는 詩帖序로서 한양 성곽을 한 바퀴 도는 巡城 야유회와 시회를 기록하였다. 또 權常愼이 1784년 어름에 지은 「南皐春約」과 「貞陵遊錄」을 비롯하여 1781년에 수락산 일대를 여행하고 쓴 「在道院將遊水落山記」 등 4편의 유기가 있다.[31] 익살스럽고 경쾌하며 짓궂은 청년의 장난기를 살린 경쾌한 유기소품이다. 권상신의 소품은 유기 작품에 특장이 있다[32]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한양 근교의 나들이를 주된 소재로 한다.

김선이 마포에서 여주까지 배를 타고 여행한 견문을 읊은 「舟行百首」는 근교 여행의 범주에 들어간다. 100수나 되는 연작인만큼 여행을 포함하여 京江水運과 서민 생활상의 묘사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33] 이밖에 김려의 『湓玄觀詩草』에 실린 「晩春游覽絶句」 12수도 도회지 근교의 나들이를 소재로 일상의 시선이 재미나게 그려지고 있다.

동인의 이런 작품에서는 도회지의 새로운 문화와 물질적 풍요가 여러 각도에서 반영되어 나타났다.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양의 소비문화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는데, 그 현상을 창작에 반영하였다. 흥미로운 문화 현상의 하나로 음식과 주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한양을 중심으로 당시 도회지에는 미식을 향유하는 문화가 성행하였고, 동인들은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특히, 심노숭은 서울 맛[京味], 서울 음식[京饌], 서울 품질[京品], 서울 조리법[京法]이라는 말을 써서 한양 특유의 음식을 부각하였다.[34] 지방 음식과는 다른 한양 음식의 차별성을 의식하여 표현하였다. 한양 음식은 좋고, 지방 음식은 나쁘다는 한양 거주민의 우월의식에 뿌리를 둔 말이다. 사치스럽게 미각을 소비한 당시 한양 부유층의 언어로 볼 수 있다.

---

31) 홍진옥, 「西漁 權常愼의 초기 산문 연구」, 『개신어문연구』 42, 개신어문학회, 2017, 75-115면; 김하라, 「金鑢의 『西漁文草』 편집에 대한 一考」, 『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79-119면.
32) 김영진, 「朝鮮後期明淸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182-185면.
33) 강혜선, 「김선(金鐥)의 〈주행백수(舟行百首)〉 연구」, 『한국한시연구』 28, 2020, 187-217면.
34) 안대회,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167-192면.

당시 한양은 음식이 상품의 한 종류로 유통되었고,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 매식문화가 도회민 생활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심노숭은 한양에서는 "부잣집이 하루에 식비를 일천 전(10냥)을 쓰므로 기린을 삶아 죽을 끓이고 용을 썰어 젓을 담아서 천태만상의 기교를 부린 음식을 식탁에 벌여 놓는다."[35]라고 사치스런 식도락을 보고하였다.

음식은 향락적 소비의 일부로 향유되었으나 유학적 관습에 따라 작품에 투영되기 힘들었고, 투영된다고 해도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심노숭을 비롯하여 김조순, 김려 등은 금기를 무시하고 상품화한 음식문화를 자유롭게 묘사하였다. 상업문화에 익숙한 도회민의 감성에 젖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조순도 미식가의 시각을 작품에 투사하여 창의적 작품을 다수 지었다. 권1에 실린 「엿을 먹으며[喫餳]」와 권3에 실린 「사랑채 아래에서 젊은이들이 땅에 앉아 고기를 굽고 술잔을 돌리기에 마침내 부채를 읊은 연구의 시를 차운하여 장난삼아 짓다[舍下諸少, 地坐燒犒行酒, 遂用詠扇聯句韻戲賦]」가 주요한 사례이다. 앞 작품에서는 엿을 즐겨 먹는 취향을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뒤의 작품에서는 벙거짓골로 煖爐會를 벌이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묘사하였다. 그밖에 권6의 「밥을 먹고 붓 가는 대로 쓰다[飯罷信筆]」에는 다음 내용이 보인다.

家裏豬炒與雉羹　우리 집안 제육볶음과 꿩국은
不及黎祈申廚烹　신씨 집 두부 요리에는 못 미치고
朴家饅頭與煎肉　박씨 집 만두와 육전은
不如韓甕芥菹莖　한씨 집 장독대 갓김치만 못하네.[36]

제육볶음과 꿩고기국을 먹으면서 신씨의 두부 요리, 박씨의 만두와 육전, 한씨의 갓김치를 떠올리고 맛을 비교하였다. 세 사람은 당시 한양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한 주인으로 추정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조순은 심노숭처럼 마음껏 미식을 작품에 표현할 위치가 아니었고, 그 문집은 검열이 많이 되었음에도 도회적 취향의 흔적이 남아 있다.

35) 심노숭, 『효전산고』, 「제향루집서후(題香樓集敍後)」.
36) 김조순 저, 이성민 옮김, 『풍고집(楓皐集)』권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김려도 두 문인에 뒤지지 않았다. 김려는 유난히 술집과 주모를 애호하였고, 이를 작품에 표현하였다. 「주점 이씨 노파를 애도하다[哀李酒嫗]」는 광희문 안 두다리 남쪽에서 술집을 하던 주모가 죽자 지은 7언절구 10수의 애도시이다. 술맛보다 주모의 意氣에 끌려 단골술집으로 삼아 자주 드나든 주점이었다.[37] 또 동대문 밖에서 李楚娘이 운영하던 주점과 동대문 안쪽 인수교 동쪽에 있는 殷愛의 주점도 단골이었다. 술집을 즐겨 찾던 버릇은 연산현감에 재직할 때 지은 「黃城俚曲」에도 여러 곳 등장한다. 고을 안의 술집 서른 곳 가운데 오가피주를 잘 빚는다는 趙氏 노파 집에서 술을 사다가 먹었고, 屛風亭 酒店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등 현감의 위치에도 장터와 술집을 거리낌없이 묘사하였다.

18세기 한양에서는 가정 안에서 조리되고 향유되던 음식과 술이 고객을 불러모으는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었다.[38] 음식과 술을 즐기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난 한양에서 담정 그룹 문인은 음식 소비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시문으로 증언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 이전과 이후의 문인에게서 흔히 찾아지지 않는 현상이다.

5. 도회지 여항인의 묘사와 대중문화의 중시

담정그룹 동인은 도회지 시정 사람과 그들의 삶이 펼친 독특한 표정에 주목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시정의 여항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문단에 크게 확산하였는데 그룹 동인은 한층 더 열의를 보였다. 이 경향의 확산은 한양의 인구구조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18세기를 전후하여 한양은 인구구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종실과 부마, 사대부, 의원, 역관, 서리와 시전상인이 주축을 이루던 17세기와는 달리 19세기 초에는 職任者, 서리, 貢人, 시전상인, 군병, 상인, 수공업자, 閑雜之類가 주축을 이루었다.[39] 상업도시의

37) 김려, 『薄庭叢書』 권29, '逋玄觀詩草', 「哀李酒嫗」. "歷落嶔崎病秀才, 靑騾倦踏綠帘開. 何曾酒有砂礎味, 爲愛孃孃意氣來."
38) 안대회, 『한양의 도시인』, 문학동네, 2022, 30-34면.
39) 고동환, 「교환과 시장 그리고 도시—조선 시장의 탄생과 발달」(홍순민 외, 『조선시대사1—국가와 세계』, 푸른역사), 2015, 173-213면.

특성에 걸맞은 인구구조를 보이는데 그처럼 여항인이 한양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그룹의 문학에는 인구구성의 실상이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도시에서는 인간관계가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다. 그룹 동인은 일반 문인에 비해 수평적 인간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 문학에서 여항인과 평민, 서얼,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전통적으로 문학의 주요 묘사 대상이었던 양반사대부의 비중은 오히려 크지 않다. 동인 전체가 봉건적 사유를 크게 벗어난 인간관을 확고하게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분이나 권력, 가문, 학맥 등 위계를 따지는 전통적 인간관보다는 상대적이고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관에 더 접근하고 있다.

김려는 그 점에서 더 뚜렷한 태도를 보였다. 인간을 보는 그의 시선에는 위계가 아닌 평등의 감수성이 보인다.[40] 앞서 살펴본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점 이씨 노파를 애도하다」를 비롯하여 주모를 애정어리게 묘사한 시에서도 남다른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 『思牖樂府』 290수는 유배지 부령에서 엮은 각양각색의 서민을 묘사하였고, 연산 현감으로 재직할 때 지은 「황성이곡」에도 연산 지역 서민을 그려 독특한 인간관을 드러냈다.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담정총서』 권10 『丹良稗史』는 한양 저자거리에서 불우하게 살아간 약자와 소수자를 주로 묘사하였다. 8명의 인물은 건어물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행상꾼을 다룬 「賈秀才傳」, 망태기를 메고 다니는 거지를 다룬 「索囊子傳」, 의로운 서민 포수를 다룬 「砲手李士龍傳」과 의원을 다룬 「安黃中傳」, 서얼로서 천재 기술자인 李徹哲을 다룬 「李安民傳」, 한양 기방 등에서 노래와 口技로 살아간 기인을 묘사한 「蔣生傳」 등이 대상 인물이다. 야사총서를 편찬하며 발견한 기인을 새롭게 각색하였거나 직접 견문하고 가깝게 지낸 인물이다. 문집에 수록된 서얼이자 기인인 김용행을 묘사한 「金舜弼傳」 역시 비슷한 성격의 전기이다.

김조순,이옥,심노숭,김선 등이 지은 전기의 성격도 김려의 전기와 다르지 않다. 『虞初續志』는 젊은 시절에 김려와 김조순의 전기 수십 수를 엮은 稗史小品集인데 위에서 살펴본 김려의 전기와 성격이 비슷하다. 『담정총서』 권12

40) 박혜숙, 「김려의 사유악부」, 『한국한시의 장르적 시각』, 소명출판, 2020, 173-215면,

『古香玉小史』에는 『우초속지』에 실렸던 김조순의 인물 전기 6편을 수집하여 수록하였는데 모두 기이한 능력을 지닌 점술가, 國手, 검객, 역관, 범을 잡은 신생 등 여항인을 소재로 하였다.[41] 『풍고집』 권15에 실린 「韓顯傳」도 종로 포목전에서 거간꾼으로 살아가는 상인의 삶을 묘사하여 젊은 시절의 관심을 이어갔다.

김려와 김조순은 위에서 제시한 전기보다 더 많은 작품을 지었으나 실전되었다. 실전된 전기 역시 대부분 여항인의 삶을 다루었다. 「蘇蕙娘小傳」, 「睦處士傳」, 「沁紅小傳」, 「鄭雪艷傳」 등 사라진 전기의 목록은 『사유악부』에 다수 보인다. 김선도 떠돌이 시인을 다룬 「平凉子傳」을 지었으나 사라졌다.

여항인 주인공을 작품화한 점에서 한층 주목할 동인은 이옥이다. 이옥의 전기는 특히 한양 시정사회가 주된 공간이다. 25편의 전기 가운데 시정 인물을 다룬 작품이 11편이다. 의인이나 열녀를 다룬 14편도 대부분 서민이 주인공이다. 『동상기』는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한양 도회민을 묘사하였다. 남자는 里門洞에 홀로 사는 노총각이고, 여자는 새문밖 居平洞의 작은 골목에서 반찬가게 하는 가난뱅이이다. 겉으로는 士族임을 내세웠으나 신분은 허울뿐이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시정 사람에 불과하다. 김려의 「고시위장원경처심씨작」에서 장파총이 명문가 후예임을 내세운 것처럼 그저 서민일 뿐이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시정 사람이다. 『俚諺』도 한양 시정 여인의 삶과 애정을 다룬 연작시이다. 다양한 작품에서는 부자와 사치, 빈자와 극빈층, 임노동자와 무위도식하는 자, 사기와 노름, 새 상품의 등장과 향유, 자유연애와 非婚, 취미생활과 근교 나들이, 사기와 협잡 등 도회지 시정사회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태가 파노라마처럼 묘사되고 있다.[42]

심노숭이 작심하고 지은 전기 작품 역시 역관과 서민 여성, 기녀, 상인을 소재로 하였다.[43] 독립된 전기인 「桂纖傳」, 「書具八柱事」, 「書傭奴事」, 「朴媼傳」, 「玄啓桓傳」, 「全長福傳」과 필기에 수록된 「張福相」, 「沈鏞」 등 다수의 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장복상」은 이옥이 지은 「張福先傳」과 같은 소재를

41) 이창혁, 『楓皐 金祖淳의 傳 文學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5.
42) 안대회, 앞의 글, 2018.
43) 김영진, 「孝田 沈魯崇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36-54면.

두고 달리 쓴 전기이니 관심의 공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전기 장르는 동인의 지향과 역량을 잘 보여준다. 한양의 시장과 골목에서 사는 상인과 유랑인 등 한양 주민의 주류로 등장한 여항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소재는 풍부해졌고, 이야기는 재미있어졌다. 한양 주민의 다양한 현실과 흥미로운 사연을 생동하는 문체로 드러냄으로써 문학의 소재를 확대하고 주제를 다변화하며, 재미를 강화하였다. 박지원의 『방경각외전』과 『연상각선본』 등에 수록된 여항인 소재 전기를 계승하여 소재의 폭이 확장되고 내용은 재미있어졌다. 박지원에 버금가는 성취를 담정그룹 동인의 패사소품에서 찾을 수 있다.[44]

한양의 도회지 현실에서 동인들이 주목한 또 다른 영역은 대중문화였다. 시정에서 향유한 다양한 대중문화를 동인들은 직접 향유하는 동시에 작품화하였다. 저잣거리에서 공연되는 공연물을 저속한 예술로 낮춰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작품에 반영하였다. 양반사대부의 고급스럽고 점잖은 예술문화와 함께 서민이 즐기는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공연문화의 실태와 가치를 긍정하였다.

강이천은 1778년에 장편시 「南城觀戱子」를 지었다. 남대문 밖에서 차일을 치고 벌어진 인형극과 가면극을 보고 공연관람의 동기와 장면의 특징을 묘사하였다. 꼭두각시 인형극과 상좌춤과 팔선녀춤, 노장과장과 샌님과 포도부장춤, 거사와 사당춤, 할미과장을 구경하고 자세히 묘사하였다. 기이한 구경거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도회지 서민의 열망과 실상을 누구보다 잘 표현하였다. 특이한 인물의 이야기 15편을 모은 『梨花館叢話』에서는 口技를 비롯한 시정사회의 예능인을 다수 기록하여 도회지 특유의 새로운 인간과 삶을 드러냈다.

이옥도 대중예술을 작품 속에 다수 투영하였다. 『담정총서』 권19의 『문무자문초』에 수록된 「歌者宋蟋蟀傳」,「聽南學歌小記」, 『담정총서』 권25 『石湖別稿』에 수록된 「遊梨園聽樂記」에서는 도회민의 관심을 끈 여러 부류의 가객을 인상깊게 묘사하였다. 각각 시정에서 명성을 구가한 가객 송귀뚜라미와

44)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續齊諧志』에는 「호질」, 「민옹전」, 「발승암기」, 「양반전」 등의 박지원 소설과 함께 김려의 전기 8편과 김선신의 「許挌小傳」이 실려있다. 순조 연간의 문인 吳顯相(1785-?)이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이 패사소품집에 담정그룹 동인의 작품이 수록된 것은 편집자가 『담정총서』를 열람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박지원과 담정그룹 전기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카스트라토처럼 여성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이름을 얻은 남학, 그리고 장악원의 연주 장면을 묘사하였다. 당시 한양에서 유명세를 얻은 가객의 개성과 특징을 현재에 전한다.

한편, 『문무자문초』에 수록된 「湖上觀角力記」과 「鄭運昌傳」은 시정사회에서 인기를 얻은 스포츠인 씨름과 바둑을 현장감있게 묘사하였다. 대중의 인기를 끌어 호응을 얻고 금전을 버는 현장의 묘사는 스포츠 대중문화가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조순도 도회지 공간의 유희와 공연문화를 즐겨 묘사하였다. 演戱와 바둑내기를 묘사한 작품이 다수이다. 권1의 「연못가 정자에서 광대 우씨의 판소리를 듣고 장난삼아 짓다[池亭聽禹伶俳曲 戱賦]」와 권5의 「심노숭, 趙學殷, 金照와 함께 산에 들어가 종일토록 소요하다가 저녁에 등불 밝히고 장난삼아 짓다[與沈孝田・趙斯隱・金石聞入山 終日逍遙 夕燈戱賦]」, 권6의 「줄광대 구경[觀技]」이 대표작이다. 정조 순조 때의 명창으로 유명한 禹春大의 판소리와 八風舞, 탈춤 공연, 옥호산방 뒤의 백악에서 國手 김한흥의 바둑 대국, 판소리 등이 소재로 등장한다. 김조순은 자기 작품을 遊戱文字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전통적 주제와는 다른 주제를 가벼운 필치로 썼음을 변명하기 위한 성격 규정인데 그런 작품에서는 당시 한양에서 어떤 대중문화가 펼쳐지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담정총서』 권12 『古香玉小史』에 실린 「李生傳」은 서대문밖에 살던 무명의 바둑꾼이 당대 최고의 국수로 명성이 자자한 卞興平을 이기는 사연을 다뤘다. 번화한 상가인 구리개 큰 약국[銅街大藥肆] 앞에서 편을 나눠 바둑 시합하는 장면은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는 경기의 활력을 보여주는 장면 묘사로 이옥의 「호상관각력기」와 「정운창전」의 작품과 함께 긴장미와 박력을 느끼게 한다. 당시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인 구리개와 마포 도화동,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남산 등 수많은 인파 속에서 떼를 지어 싸우고 경쟁하는 왁자한 소란이 있다. 우리 문학에서 흔히 보지 못한 '시끌벅적한 대도회'의 실상 묘사는 담정그룹 동인이 지향한 문학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6. 맺음말

담정그룹은 정조와 순조 연간에 한양 토박이 문인이 중심을 이룬 문인 집단이다. 이 문인 그룹은 혈연과 혼맥, 사제와 성균관 교우, 당파와 친분, 거주지의 관계망으로 중첩되어 구성되었으나 외형적 관계망을 넘어서 일정한 문학적 취향을 공유하였고, 독특한 문학세계를 창조하였다. 이들이 이룬 창작의 성과는 『담정총서』를 중심으로 하여 심노숭, 김조순, 강이천의 문집에 실려 전한다. 한국문학사에서 이 문인 그룹으로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동인들은 큰 변화나 색다른 개성 없는 문단의 타성을 비판하며 당시에 성행한 소품문을 주요한 문체로 채택하여 창작하였다. 흔한 소재에서 벗어나 상업도시 한양이 발산하는 자기 시대의 생동하는 인간과 사회에 시선을 집중하여 창작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18세기 한양은 과거의 현황과는 크게 달라져 상업도시로서 변영을 구가하였는데 동인들은 시문에서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을 즐겨 묘사하였고, 시정에서 살아가는 여항인을 본격적으로 묘사하였다. 그 결과 동인의 작품에서는 상업도시의 활력과 상인의 삶, 도회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작가의 소비생활과 도회민의 생활상이 풍성하게 드러났다. 한양의 인정세태와 여항인의 삶, 대중문화의 다양함을 생생하게 작품화하였다.

개별 작가의 개성을 넘어 주요 동인이 지향한 문학의 도시성은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담정그룹을 남다른 개성을 지닌 독특한 유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 문학그룹이 지향한 도회지 문학은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남다른 개성을 지닌 독특한 유파임을 부각한다. 식상한 소재와 구태의연한 인물, 전통에 기댄 낡은 문체를 버리고 낯설고 새로운 문체로 한양의 도회지 문화와 인간, 분위기를 조선 후기 문학의 주요한 영역으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 참고문헌

金 鑢,『薖庭遺稿』, 계명문화사, 1984.
_____,『薖庭叢書』, 국립한국문학관, 사본.
_____,『薖庭叢書』, 영인본, 학자원, 2014.
沈魯崇,『孝田散稿』, 영인본, 학자원, 2014.

강경훈,「중암 강이천 문학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25-156면.
강혜선,「김려의『만선와잉고』에 나타난 일상성」,『돈암어문학』20, 돈암어문학회, 2007, 32-64면.
_____,「『閨人觀尺牘』과『楓皐觀小牘』을 통해 본 金鑢와 金祖淳의 교유 양상」,『한국한문학연구』69, 한국한문학회, 2018, 37-72면.
_____,「金鑣의 〈舟行百首〉 연구」,『한국한시연구』28, 한국한시학회, 2020, 187-217면.
김영진,「孝田 沈魯崇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_____,「朝鮮後期明淸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_____,「金鑢의 編書 활동과 交遊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대동한문학』47, 대동한문학회, 2016, 41-78면.
김용태,「楓皐 金祖淳과 '북촌시단'」,『민족문학사연구』61, 민족문학사학회, 2016, 7-37면.
김하라,「金鑢의『西漁文草』편집에 대한 一考」,『대동한문학』47, 대동한문학회, 2016, 79-119면.
박준원,「玄同 李安中 硏究」,『대동문화연구』25,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1990, 93-107면.
_____,「『薖庭叢書』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4.
박혜숙,『한국한시의 장르적 시각』, 소명출판, 2020,
방현아,「重菴 姜彝天의『漢京詞』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4.
안대회,「城市全圖詩와 18세기 서울의 풍경」,『고전문학연구』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213-249면.
_____,「조선후기 小品體 遊記의 연구」,『대동문화연구』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211-243면.
_____,「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沈魯崇의『孝田散稿』와『南遷日錄』을 중심으로—」,『동방학지』16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167-192면.
_____,「18세기 후반 서울의 都市相과 尹愭의 시선」,『대동문화연구』8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55-84면.
_____,「『楓皐集』해제」(김조순 지음, 조창록 외 옮김,『楓皐集』1), 성균관대 출판부, 2019, 23-48면.
_____,「石見樓 李復鉉의 시세계」(이복현 지음, 조창록 외 옮김,『石見樓詩鈔』, 성균관대 출판부, 2019), 1-29면.
李復鉉 저, 조창록 외 옮김,『石見樓詩鈔』, 성균관대 출판부, 2019.
이재운 지음, 안대회 옮김,『해동화식전』, 휴머니스트, 2019.
이종묵,『한시 마중』, 태학사, 2012.
이창혁,『楓皐 金祖淳의 傳 文學 硏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5.
임형택,『이조시대 서사시』2, 창비, 2013.

鄭炳浩,「金鑢文學 연구의 성과와 반성적 검토」,『대동한문학』47, 대동한문학회, 2016, 5-40면.
정우봉,「강이천의『漢京詞』에 대하여—18세기 서울의 시적 형상화—」,『한국학보』20(2), 일지사, 1994.
허준구,「潭庭 金鑢의 시세계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1.
홍순민 외,『조선시대사1—국가와 세계』, 푸른역사, 2015.
홍진옥,「潭庭 金鑢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_____,「西漁 權常愼의 초기 산문 연구」,『개신어문연구』42, 개신어문학회 2017, 75-115면.

【Abstract】

Literary World of Damjeong Group and City Culture of Hanyang as Commercial City

Ahn, Daehoe*

This paper analyzed the literary world of Damjeong Group writers in the context of city culture. The key members of Damjeong Group were the 16 writers listed in Damjeong Kim Ryeo's *Damjeong Chongseo*, including Kang Icheon and Sim Noseung. These writers, who are Seoul natives. showed unique literary traits. Thet criticized the habitual, unchanging routine of the literary circle, and created works in the form of short essays. Instead of relying on worn-out, commonly used materials, they chose the new society and citizens of Hanyang as their main subjects.

The writers enjoyed Hanyang's material abundance and immersed themselves in city culture. Their attituds were reflected in theirs works, and they affectionately portrayed common people living in Hanyang during the late 18th century—a time of active trade. As a result, the captured the energy of the city, lives of merchants, spendings of writers enjoying material abundance, lives of city dwellers, and popular culture.

The style of city literature aspired by the group is unique and like no other i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ignificance of their works lies in abandoning overused materials, predictable characters, and old writer styles, and adopting a new, unfamiliar writing writing style that contributed to enhancing Hanyang's city culture, people, and atmosphere.

Keywords: human nature, figuration, exile, *Gamdam Diary*, five character ancient poem, farewell poem, *Sayuakbu*.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

* Professor,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